「브레슬린暴言」美정치문제 조짐

뉴욕知事 두둔발언에 市長은"비난받아야" 뉴스데이紙는 2주간 無給정직 처분내려

人種차별관련 큰 파문

【뉴욕支社=宋惠蘭기자】美 뉴스데이紙칼럼니스트 지미 브레슬린의 한국계 여기자에 대한 폭언사건은 마리오 쿠오모뉴욕주지사의 브레슬린 두둔발언으로 정치문제로까지 화대될 조짐이다。

쿠오모지사는 8일브레슬린이 자신의 여성차별적칼럼내용에 항의한 같은신문사 몬지연기자(25)에게 눈꼬리가 올라간 노란 똥개라고 욕설을 퍼부은것은 어리석고 무례한 짓이라고 논평하면서도 「브레슬린은 분명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니다」라고 옹호했다。

쿠오모지사는 자신의 친구인 브레슬린이 개방적 심성 땅한 것」이라고 비판적 논평을 했다。

그러나 데이비드·딘킨스뉴욕시장은 「그의 발언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데이비드·딘킨스뉴욕시장은 「그의 발언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라고 비판적 논평을 했다。

브레슬린은 86년 뉴욕 데일리뉴스紙에 근무하면서 뉴욕생활을 예리하게 파헤친기사를 인정받아 언론인으로서의 사과로 사태를 무마하려는 최고의 영예인 퓰리처상을 받았다。

지난88년부터 발행부수 60만부의 미국 12번째신문(86년조사)인 뉴스데이紙로 옮겨와 칼럼을 쓰고있는 브레슬린은 연봉60만달러로 뉴스데이紙 직원중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가 동료인 흑기자에게 모욕을 당했다는데 크게 갈등이 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같은 백인후배 여기자에게 비슷한 충고 감추고있며, 그편견이 브레슬린의 경우처럼 흑분하면 튀어나온다는것이다。

그러나 그가 동료인 흑기자에게 모욕을 당했다는데 크게 분노를 사고 있는 것은 폭언의 당사자가 이른바 미국의 양심과 지성을 상징한다는 퓰리처상 수상자라는데 있다고 볼수 있다。

브레슬린의 칼럼은 뉴욕시의회 의원인 자기 부인이 집안일은 돌보지 않는다고 불평하며 반동답조로 자신도 여성관리들을 좋아하지 않는 시점에 발생, 더욱 교포사회에게 파문을 넓혀가고있다。

"한국인 暴行"…黑人들 불매운동

이사건은 최근 뉴욕흑인들이 한국인상점에 대한 조직적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 발생, 더욱 교포사회에게 파문을 넓혀가고있다。

불매운동은 지난해 1월 뉴욕 브루클린의 한 한국인상점에서 물건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는 흑인여자를 한국인 주인이 밀쳐 쓰러뜨린 사건이 발단이었다。

이후 흑인운동가들은 지금까지 이가게 앞에서 매일 항의시위를 벌이면서 전체 한국인상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다。

흑인들의 항의시위는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의주장이 과장된 것으로 밝혀졌고 뉴욕대법원이 지난2일 피켓시위를 금지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되고 있다。

때문에 현지언론들은 점차 흑인들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뉴욕타임스紙는 8일 자 사설에서 이 불매운동을 「인종차별적 편견의 소산」이라고 비판하고 「한국인들은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백인들의 차별에 시달려온 흑인들이 이번엔 한국계에 인종적 편견을 노골화하고 미국사회의 지성인이 인종차별적 폭언을 서슴지않는것이 현대 미국사회의 비뚤어진 단면이다。

◇비뚤어진 人種시각 뉴욕의 교포화가 민영순씨가 「눈이 가늘게 찢어진 동양인」이라는 백인들의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을 풍자한 작품 「나를 만들라=대상화된 이방인」。

통과 案

人權보장·海外여행 허용

관영방송 보도 유럽安保회의 참여도 희망

【빈=聯合】알바니아는 개인의 권리를 대폭강화하고 반국가범죄의 범위를 축소하고 ▲여자에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하며 ▲해외여행과 외국에대한 투자를 허용하는등광범위한 개혁입법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하고 『사회·경제및 문화적 변화추세에 맞추어 인권보호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항구적 의무』라고 밝혔다。

한편 알바니아의 아딜·카르카니총리는 8일 인민의회연설에서 알바니아는 東西간의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공식발표하면서 알바니아의 중앙계획경제체제를 대폭 수정하는 내용의 경제개혁안을 밝힌바 있다。

한편 현지 분석가들은 알바니아의 인권개혁안 채택과 CSCE가입의사 표명은 동구를 휩쓸고있는 개혁물결을 외면해오던 알바니아가 드디어 민주화개혁을 수용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분명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고르바초프, 軍개혁 촉구

【빈=聯合】바나아 관영ATA방송이 9일 보도했다。

ATA방송은 이날 알바니아의회가 ▲법부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대폭적인 인권개혁조치를 실시할것이라고 알바니아 관영ATA방송이 9일 보도했다。

ATA방송은 이날 알바니아의회가 ▲법부부를 신설하

야·이 상에서 군대 =聯合】

民主化관련 解雇항의 네팔敎授들 단식농성

【카트마두=聯合】네팔의 대학교수들은 올해초 8주간의 민주화시위에 참가한 동료교수들을 해고한데 항의, 대학책임자의 퇴진을 요구하며 10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갈라진 유럽의 긴장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